

한국어와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과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을 비교하여 이들의 형태/의미론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을 중첩(reduplication)현상으로 보고 반복된 두 개의 형용사 중에서 선행하는 부분을 중첩의 접사로 본다. 즉,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을 어두중첩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머리말에 이어 2 절에서는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에 대해, 3 절에서는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에 대해 살펴보겠다. 4 절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의 형태/통사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5 절에서는 이들이 선행시된 어두중첩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2.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

한국어에는 같은 형용사를 반복하여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 이 때 선행하는 형용사는 ‘-디, -나, -고’ 등을 취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형식은 ‘-디’ 형이며 ‘-나’ 형이나 ‘-고’ 형은 극히 일부의 형용사들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1) 그는 천천히 차디찬 물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다.

(2)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린다.

(3)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이러한 구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국어학계에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문법개론서들에서 주로 연결어미에 의해 같은 형용사가 이어져 있는 구성으로 다루어져 왔다. 형용사 반복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형용사 반복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

ㄱ. 통사론적 구성(허웅 1984, 김승곤 1996)

ㄴ. 형태론적 구성: 연결어미에 의한 복합어(고영근 1989, 허웅 1995)

접사에 의한 복합어(유목상 1985)

허웅(1984: 234), 김승곤(1996: 504) 등에서는 이를 힘준법의 이음법씨끝에 의해 같은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고영근(1989: 407), 허웅(1995: 964-965) 등에서는 이들이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된 복합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고영근(1989: 407)은 ‘-디’ 형을 ‘-나’ 형, ‘-고’ 형과 함께 묶어 단어접속의 대등적 연결어미로 강세를 표시하며, ‘멀고먼, 기나긴, 차디찬’ 과 같은 표현은 더 이상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웅(1995)은 이들이 앞뒤에 이어진 두 말을 한 월성분으로 만들며 힘준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음법씨끝이라 하였다. 한편 유목상(1985: 48-49)은 ‘-고, -나, -디’ 가 활용어미가 아니라 접사(lexical formative)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창섭(1981: 65-74) 또한 ‘-디’ 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를 활용어미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디/-나/-고’에 의한 반복적인 연결이 허용되는 형용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야후! 국어사전]).

(5) 형용사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한국어 형용사 I

ㄱ. -디: 가늘디 가늘다, 가깝디 가깝다, 가볍디 가볍다, 거뻏디 거뻏다, 겹디 겹다, 곱디 곱다, 굵디 굵다, 길디 길다, 깊디 깊다, 너르디 너르다, 넓디 넓다, 높디 높다, 누르디 누르다, 다디 달다, 달디 달다, 되디 되다, 두껍디 두껍다, 뚱디 뚱다, 뜨겁디 뜨겁다, 맑디 맑다, 맵디 맵다, 무겁디 무겁다, 물디 물다, 붉디 붉다, 시디 시다, 쓰디 쓰다, 얇디 얇다, 예쁘디 예쁘다, 자디 잘다, 작디 작다, 짧디 짧다, 좁디 좁다, 질디 질다, 짜디 짜다, 차디 차다, 크디 크다, 푸르디 푸르다, 흐리디 흐리다, 흐디 희다.

ㄴ. -나: 기나 긴, 머나 먼, 크나 큰, 하나 한

ㄷ. -고: 하고 한

형용사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어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제어로 올라 있는 형용사 반복구문의 목록도 사전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형용사들이 모두 사전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형용사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전에 올라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도 반복구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AIST 국어정보베이스의 한국어용례검색, <http://morph.kaist.ac.kr/kcp/>).

(6) 형용사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한국어 형용사 II

가난하다, 귀하다, 싫다, 순하다, 슬프다, 어리다, 약하다, 여리다, 여위다, 진하다, 질기다, 짹다, 착하다, 천하다, 축다, 혼하다.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정상형용사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색상형용사들이 널리 허용된다. 경험주의 주관적 심정 또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심리형용사나 사물이 서로 같거나 다름을 나타내는 비교형용사는 대체로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6)에 ‘싫다, 슬프다’와 같이 심리형용사로 분류될 수 있는 형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반복구문에 사용될 경우에는 모두 부사절이나 관형절에 사용되어 심리형용사라기보다는 정상형용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예들이다.

(7) ㄱ. 과연 저토록 싫디 싫게 울어 줄 것인지 자문하고 있었다.

ㄴ. *그런 말을 들으니 싫디 싫구나.

(8) ㄱ. 사랑해선 안될 사람들의 슬프디 슬픈 불꽃놀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ㄴ. *나는 김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슬프디 슬펐다.

정상형용사들이라고 해서 모두 형용사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의 정도를 극도로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구문의 의미적 특성과 그 대상이 되는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 경우

반복구문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색상형용사들 중에서도 색상의 의미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강조하기가 힘든 형용사들은 반복구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붉다’는 반복구문이 되지만 ‘발갡다(조금 연하고 산뜻하게 붉다), 벌겡다(연하게 붉다)’는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붉다’는 붉은 색의 의미영역이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붉은 색의 정도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반복구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갡다/벌겡다’는 이미 어휘내적으로 붉은 색의 정도가 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다시 붉은 색의 정도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반복구문의 구성은 ‘발갡다/벌겡다’의 어휘적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발그대대하다, 발그땡땡하다, 발그레하다, 발그무레하다, 발그속속하다, 발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발그족족하다; 벌그데데하다, 벌그땡땡하다, 벌그레하다, 벌그무레하다, 벌그속속하다, 벌그스레하다, 벌그스름하다; 불그데데하다, 불그땡땡하다, 불그레하다, 불그무레하다, 불그속속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족족하다’ 등도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희다’의 반복구문이 관찰되는 대신 ‘하얗다/허옇다’의 반복구문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얗다/허옇다’는 ‘매우 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원래의 어휘적 의미 안에 색상의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반복구문의 구성은 잉여적인 의미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검다, 누르다, 푸르다’ 등은 반복구문이 성립하지만 ‘가맣다(질게 검다)/거멓다/까맣다/꺼멓다, 노랗다(매우 노랗다)/누렇다, 파랗다(밝고 선명하게 푸르다)/퍼렇다’ 등은 반복구문의 용인가능성이 떨어진다. 새까맣다(빛깔이 아주 까맣다)/시꺼멓다(아주 꺼멓다), 새노랗다/시누렇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새하얗다/시허옇다’의 경우에는 용인가능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이 ‘가맣다/꺼멓다, 노랗다/누렇다, 파랗다/퍼렇다, 하얗다/허옇다’보다도 어휘적 의미의 정도가 더욱 극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반복구문형성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즉 어휘자체의 의미에 정도의 극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자질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 여기에 그 어휘적 의미의 정도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반복구문의 구성은 잉여적인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정상형용사들의 반복구문에도 비슷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늘다’는 반복구문의 대상이 되지만, ‘가느스레하다, 가느스름하다, 가느다랗다’는 반복구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늘다’는 위에서 본 ‘붉다’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영역이 열려 있으므로 반복구문에 의해 강조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느스레하다(조금 가늘다), 가느스름하다(조금 가늘다)’는 그 의미의 정도가 이미 약화되어 있는 어휘이므로 반복구문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가느다랗다(무척 가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의 정도가 강조되어 있는 어휘이므로 반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복구문의 적용대상이 되는 형용사들의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또한 형태론적 제약으로도 표현된다.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복합어보다는 단일어간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들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복합어의 경우 접사나 다른 어근에 의해 형용사의 의미영역을 여러 가지로 제한하게 되고, 이는 반복구문이 적용될 수 있는 어휘의미적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현상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과 유사한 현상은 할하 몽골어에서도 발견된다. 할하 몽골어에는 아래 (9)에서 보듯이 형용사의 어간 첫 음절을 복사하여 여기에 자음 /v/를 덧붙인 형태의 접사를 어간 앞에 두어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현상이 있다.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모음만을 복사하고 그 뒤에다 역시 자음 /v/를 붙인다(예 9c). 어간의 첫 음절이 장모음일 경우는 이를 단모음으로 바꾼 다음 자음 /v/를 덧붙여 형용사의 앞에 둔다(예 9d). 즉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에서 형용사 어간의 앞에 덧붙여지는 부분의 모음은 항상 단모음이 된다.

- (9) a. *cagaan* ‘희다’ → *cav cagaan* ‘아주 희다(희디 희디)’
 b. *nogoon* ‘푸르다’ → *nov nogoon* ‘아주 푸르다(푸르디 푸르디)’
 c. *ulaan* ‘붉다’ → *uv ulaan* ‘아주 붉다(붉디 붉디)’
 d. *duuren* ‘가득하다’ → *duv duuren* ‘아주 가득하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처럼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몽골어에서 형용사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형용사의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 (10)의 예들은 모두 사전에 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올려져 있는 어휘들이다. (Ceval 1996, Altangerel 1998, 小?重男 1983).

(10)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몽골어 형용사 I

adi(같다, 비슷하다), *ariun*(맑다, 신성하다), *bo*(회색의), *booronxi*(?둥글다), *buruu*(틀리다), *ganc*(혼자의), *ga?uun*((맛이)쓰다), *gegeen*(밝다), *dorvoljin*(사각의), *dugu*(?둥글다), *zugeer*(아무 것도 하지 않다, 괜찮다), *iji*(같다, 닮다), *il*(명료하다), *ilxen*(명료하다), *nogoon*(푸르다: 녹색), *o?rxon*(가깝다), *todorxo*(?명료하다, 명료하게), *torniun*(크다), *teg*(?평평하다, 평등하다), *ulaan*(붉다), *xar*(검다), *xatuu*(단단하다, 딱딱하다), *xaranxu*(?어둡다), *xooson*(가난하다, 비다), *xox*(푸르다: 청색), *xuura*(?마르다), *xereggü*(?필요없다), *cagaan*(희다), *cevedeg*(얼다, 동결하다), *cever*(깨끗하다), *cenxe*(하늘색의, 감청색의), *?imeegu*(?조용하다), *?ine*(새롭다), *yagaan*(복숭아색의)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과 마찬가지로 몽골어의 경우에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대상 형용사들은 사전에 올라 있는 위의 형용사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몽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형용사들에 대해 반복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또한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형용사에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두 명의 몽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형용사 881 개 중 한 학생(갑)은 168 개에 대해 반복구문이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반해, 또 다른 학생(을)은 163 개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두 학생이 모두 반복구문이 허용된다고 한 형용사는 131 개였다. 즉 두 학생이 반복구문이 가능하다고 답한 형용사의 약 80%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반면 20%정도의 어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이들 두 학생이 모두 허용된다고 답한 형용사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몽골어에서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형용사 II

adilxan(같다, 비슷하다), *a?mxa*(?겁 많다, 비겁하다), *alia*(장난 좋아하다), *amarxan*(평온하다, 쉽다), *angarxa*(?조금 열리다, 균열이 가다), *anxilam*(향기롭다), *arguun*(마르다), *a?iggu*(?무익하다), *ayata?xan*(편안하다, 적당하다), *bala*(?눈멀다, 어둡다), *bambagar*(유치하다), *bandgar*(살찌다), *baraan*(검다, 암갈색의), *bardam*(거만하다), *bariu*(꼭 찌다, 작다), *ba?uu*(꼭 찌다, 좁다), *bituu*(단히다, 진하다), *boginoxon*(짧다, 낮다), *bolx*(둔하다), *bosod*(똑 바로 서다, 수직의), *boxir*(더럽다), *bogluu*(멀다), *bogtor*(굽다), *bombogor*(?둥글다), *bondgor*(?둥글다), *budmal*(착색되다), *bulbara*(?부드럽다), *burigar*(곱슬머리의), *buura*(백발의), *bug?im*(무덥다), *buduun*(뚱뚱하다),

budeg(흐리다, 불명료하다), *budegxen*(흐리다, 불명료하다),
buleen(따뜻하다), ...

몽골어에서도 어두부분중첩이 적용되는 것은 대다수 한국어 형용사중첩과 마찬가지로 색상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성상형용사들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어에서도 성상형용사라고 해서 모두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상형용사지만 *ulaan*(붉다), *cagaan*(희다), *nogoon*(푸르다), *xar*(검다), *o?*(가깝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되는데 반해 *ulaavtar*(불그스름하다), *cagaavtar*(희끄무레하다), *nogoovtor*(푸르스름하다), *xaravtar*(거무스름하다), *o?rovtor*(다소 가깝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에서 ‘붉다’의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대신 ‘발갡다, 불그스름하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몽골어의 파생접사 ‘?vtar/-vtor’는 원래의 형용사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사가 붙어 있는 형용사들은 이미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원래의 어휘적 의미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보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또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한국어와 달리 몽골어에서는 성상형용사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비교형용사에 대응하는 형용사들도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0-11)에서 보듯이 *adi*(같다), *adilxan*(같다), *iji*(같다), *ijilxen*(같다) 등과 같은 형용사의 반복구문이 허용된다.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몽골어화자들에 의하면 *oor*(다르다), *ondoo*(다르다), *yalgaata?*(다르다) 등도 반복구문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비교형용사들이 모두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toste?*(닭다)와 *tosgu?*(닭지 않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몽골어에서는 한국어의 심리형용사들에 해당하는 형용사들도 일부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ayata?xan*(편하다), *gunigt/gunigta?*(슬프다), *gonsgor*(실망하다), *jargalta?*(행복하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된다. 그러나 *bayarta?*(기쁘다, 반갑다), *durta?*(좋다/좋아하다), *durgu?*(싫다/싫어하다), *jargalgu?*(불행하다), *zovlonto?*(괴롭다), *zovlongu?*(괴롭지 않다), *uramgu?*(기분나쁘다), *uramta?*(기분좋다) 등은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이 한국어보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이 구문이 명백한 외래어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kvadrat*(사각의)는 러시아어 차용어이다. 몽골어 고유어에는 자음 /k/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으며 어두자음군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어휘는 몽골어 화자들에게 명백히 외래어로 인식되고 있는 어휘이다. 그러나 몽골어 반복구문은 *kvadrat*에도 적용되어 *kav kvadrat*를 생성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6)에서 보듯이 한자어에 ‘-하다’가 붙은 몇몇 형용사(귀하다, 순하다, 약하다, 진하다, 천하다)의 반복구문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어접사 ‘-하다’와 결합되어 있으며 외래어로서의 인식이 희박한 어휘들이다.

한국어와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어의 반복구문이 항상 형용사에만 적용되는데 반해, 몽골어 반복구문의 경우 드물지만 일부 부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Kullman(1998: 219)은 몽골어에서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가 반복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몽골어 *todorxo?*(명료하다, 명료하게)는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12-13)은 이것이 형용사로 사용될 때 뿐만이 아니라 부사로 사용될 때도 반복구문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2) *Ene nomon-d urgaml-?n tuxa? tov todorxo? bi?-jee.*

this book-Dat plant-Gen about Redup clearly write-Past

‘이 책에 식물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썼다.’

(13) *Tuuni? ta?lbar tov todorxo?*

his explanation Redup clear

‘그의 설명은 아주 명료하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은 몽골어에서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반 부사들에도 반복구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의 예문들에서 *gent*(갑자기, 별안간), *sayaxan*(방금, 최근), *semxen*(조용히) 등은 형용사로는 사용될 수 없고 항상 부사로만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14) *Bag? gev gent or-j ir-ev.*

teacher Redup suddenly enter-Conn come-Past

‘선생님이 너무나 갑자기 들어오셨다.’

(15) *ter sav sayaxan mana?-d ir-eed yav-san.*

he(Nom) Redup recently mine-Dat come-Conn go-Pfv

‘그가 아주 최근에 우리집에 왔다가 갔다.’

(16) *Öroo(n)-d-oo sev semxen or-ood, xulga? xi?-(g)eed gar-av.*

Room-Dat-Refl Redup quietly enter-Conn stealing do-Conn leave-Past

‘방에 아주 몰래 들어와서 훔쳐서 나갔다.’

4. 형태론적 구성으로서의 형용사 반복구문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을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으로 본다. 우리의 논의를 진행시키기 전에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들 사이에 보이는 몇 가지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겠다.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에 사용되는 ‘-디’ 형, ‘-나’ 형, ‘-고’ 형은 모두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형태/통사/의미론적 차이가 관찰된다.

첫째, ‘-디’ 는 선행 형용사와 후행 형용사가 다른 구문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예문 17-18), ‘-(으)나’ 나 ‘-고’ 는 선행 형용사와 후행 형용사가 다를 경우에도 사용된다(예문 19-22).

(17) *밝디 착한 얼굴의 소녀

(18) *넓디 깊은 호수

(19) 크고 긴 무릎 골랐다.

(20)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다.

(21) 이제 너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랑 동고동락을 해야 한다.

(22) 그들의 삶은 가난하나 여유가 있었다.

사실 ‘-(으)나’ 나 ‘-고’ 는 동일한 형용사가 반복되는 구문에서보다는 선행 형용사와 후행 형용사가 다를 경우에 보다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 경우 문맥상 의미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휘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반면에 ‘-디’ 는 선행형용사와 후행형용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둘째, ‘-디’ 는 동사를 연결하는 구문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으)나’ 나 ‘-고’ 는 연결어미로서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들의 연결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23-24)에서 ‘-고’ 와 ‘-(으)나’ 는 각각 별개의 동사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 는 이러한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23) 철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갔다.

(24) 철수는 밥을 먹었으나 배가 부르지 않았다.

‘-(으)나’ 는 동사에 연결될 경우 반복구문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고’ 는 형용사 반복구문에서처럼 동사 반복구문에도 널리 사용된다(예문 25-26).

(25) 태산이 높다 하여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26) 그는 정거장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앞뒤로 서로 상이한 형용사나 동사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어미 ‘-(으)나’ 와 형용사 반복구문의 ‘-나’ 를 동일한 형태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둘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연결어미 ‘-(으)나’ 의 문법적인 의미기능이 반복구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결어미 ‘-(으)나’ 는 서로 대등하고 대조적인 내용을 선택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결어미 ‘-(으)나’ 의 이러한 문법적 의미기능은 앞뒤로 같은 형용사가 위치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반복구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고’ 와 달리 ‘-(으)나’ 가 동사의 반복구문에 사용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법적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글에서 연결어미 ‘-(으)나’ 와 반복구문의 ‘-나’ 를 별개의 형태소로 본다. 이렇게 볼 때 ‘-나’ 는 ‘-디’ 와 마찬가지로 선행 형용사와 후행 형용사가 동일한 반복구문에서만 사용되는 형태소이다.

셋째, 형용사 반복구문이 적용되는 형용사들의 예를 나열한 (5)에서 우리는 형용사 반복구문들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휘들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디’ 형이다. ‘-나’ 형이나 ‘-고’ 형은 극히 일부의 형용사들에 한정되어 사용되는데 반해 ‘-디’ 형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형용사들에 허용된다. 그러나 한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5)의 예들과는 달리 실제 언어사용을 살펴보면 ‘-디’ 형 못지 않게 ‘-고’ 형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5)에서 ‘-디’ 형과 함께 반복구문이 허용되는 것으로 한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다수의 형용사들이 실제로는 ‘-고’ 와도 함께 사용된다.

(27) 가늘고 가는 갈나무가 너른 들판에 지천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28) 그의 눈 앞에는 길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29) 단풍잎의 곱고 고운 자태에 흘러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오히려 ‘-고’ 형은 ‘-디’ 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리형용사들의 반복구문에도 사용되고 있다.

(30) 사랑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그립고 그립다.

(31) 자꾸 배알만 풀리고 모든 것이 밋고 밋었다.

(32) 선생님과 헤어져 돌아선 순간부터 무언지 부끄럽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우리는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에서 전형적인 유형은 ‘-디’ 형으로 본다. ‘-나’ 형은 형태/통사론적 행위가 ‘-디’ 형과 유사하나, 그 쓰임이 어휘분포적으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반복구문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없다. ‘-디’ 형은 형용사의 반복에만 사용되는 데 반해, ‘-고’ 형은 형용사나 동사 구별없이 한국어의 용언 반복구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고’ 형은 형용사의 반복구문이라기보다는 용언의 반복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유형론적으로 볼 때도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고’ 형보다는 ‘-디’ 형이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나’ 형은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반면 ‘-고’ 형은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즉 ‘-디/-나’ 형은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고’ 형은 두 개의 형용사구가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구성으로 분석한다. 몽골어와 같이 한국어와 유사한 형용사 반복구문을 보이는 대부분의 알타이제어들의 형용사 반복구문도 대개 형태론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을 ‘-디/-나’ 형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으로 분석된다. 즉 두 언어에서 형용사 반복구문은 두 개의 어휘가 결합되어 있는 구성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어를 이룬다는 것이다. 두 언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이 하나의 형태론적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법현상에서 알 수 있다.

첫째, ‘-디/-나’ 형 형용사 반복구문에서 선행어와 후행어 사이에는 다른 어휘적/문법적 요소가 끼어 들 수 없다(예문 34-35). 즉 형용사 ‘-디/-나’ 형의 경우 선행부분과 후행부분이 분리될 수 없다.

(34) *차디도 찬 물 속으로 / *차디 또 찬 물 속으로

(35) *크나도 큰 은혜 / *크나 또 큰 은혜

‘-디/-나’ 형과 달리 ‘-고’ 형의 경우에는 예문(36-37)과 같이 선행형용사와 후행형용사가 분리되어 그 사이에 다른 어휘적/문법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36) 그립고 또 그립다

(37)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도 한국어 ‘-디/-나’ 형과 마찬가지로 반복구문의 선행부분과 후행부분이 분리될 수 없다.

(38) *jijigxen bogood cenxer devter*

small and clear note

‘작고 깨끗한 공책’

(39) **cev bogood cenxer devter*

Redup and clear note

(40) *uulxeg bogood xaluun odor*

cloudy and hot day

‘흐리고 더운 날’

(41) **xav bogood xaluun odor*

Redup and hot day

둘째, 한국어의 ‘-디/-나’ 형은 선행어와 후행어가 개별적으로 수식어를 가지고 이들과 결합관계를 이룰 수 없다(예문 42-43). (42a)의 ‘너무도’와 (43a)의 ‘눈물나게’는 모두 반복구문의 선행부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구문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예 (44)는 ‘-고’ 형의 경우에는 반복구문의 일부분 특히 후행부분이 개별적인 수식어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2. a. 너무도 크나 큰 은혜

b. *크나 너무도 큰 은혜

43. a. 눈물나게 차디 찬 강물

b. *차디 눈물나게 찬 강물

44. a. 더욱 그림고 그림다

b. 그림고도 더욱 그림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도 한국어 ‘-디/-나’ 형과 마찬가지로 선행부분과 후행부분이 개별적으로 수식어를 가질 수 없다(예문 45-46).

(45) a. *ünexeer xuv xu?ten us* ‘정말로 차디 찬 물’

really Redup cold water

b. *xuv unexeer xu?ten us ‘차디 정말로 찬 물’

Redup really cold water

(46) a. ünexeer ov orgon tal ‘정말로 넓고 넓은 초원’

really Redup wide plain

b. *ov unexeer orgon tal ‘넓고 정말로 넓은 초원’

Redup really wide plain

셋째, 앞에서 우리는 한국어 ‘-디/-나’ 형과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이 일부 특정형용사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보았다. 형용사 반복구문이 통사론적 구성이라면 이러한 어휘적 제약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의 특정 형용사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문을 통사론적 구성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한국어 ‘-고’ 형은 적용대상이 되는 동사나 형용사에 대해 어휘적인 제약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넷째, 한국어의 경우 형용사 반복구문은 복합어(특히, 합성어)형성에서 흔히 보여 주는 음운론적 탈락현상을 보여 준다. 한국어에서는 합성어를 이룰 경우 선행 어근의 자음 /ㄷ/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다; 술 + 나무 => 소나무, 불 + 삽 => 부삽, 달 + 달 => 다달, 둘 + 셋 => 두셋. 우리는 형용사 반복구문 ‘-디/-나’ 형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예 47-48). 그러나 ‘-고’ 형에서는 이러한 음운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예 49).

47. 달다 => 다디달다, 잘다 => 자디잘다

48. 길다 => 기나긴, 멀다 => 머나먼

(49) 가늘다 => 가늘고 가늘다 / *가느고 가느다, 길다 => 길고 길다 / *기고 길다

달다 => 달고 달다 / *다고 달다, 잘다 => 잘고 잘다 / *자고 잘다.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어 ‘-디/-나’ 형과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을 통사론적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국어의 경우 대개의 사전들에 형용사 반복구문이 다수 표제어로 올라 있다는 사실도 이들이 복합어라는 화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골어의 경우에는 반복구문 자체보다는 이들의 어두접사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다르다.

5. 선명시된 어두중첩으로서의 형용사 반복구문

몽골어 형용사 반복구문은 전형적인 중첩(reduplication)의 예를 보여 준다.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어간의 일부(어간의 첫번째 자음과 첫번째 모음)를 복사한다는 점에서 부분중첩, 어간의 앞에 중첩접사를 둔다는 점에서 어두중첩, 중첩접사의 음소선율 중 일부(마지막 자음골격)가 자음 /v/로 선명시되어 있다(prescribed)는 점에서 선명시된 중첩이다. 어두접사에 선명시된 /v/는 그 자체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독자의 형태소가 되지 못하고 접사의 일부분을 형성할 뿐이다. 즉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선명시된 부분어두중첩(prescribed partial prefix reduplication)’ 이다.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구문의 ‘-디/-나’ 는 ‘-고’ 와 마찬가지로 주로 연결어미로 여겨져 왔다. 이는 ‘-디/-나’ 형 반복구문이 연결어미에 의해

동사구나 형용사구를 연결하는 것과 유사한 형식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반복구문에서 유사한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고’ 형의 경우 ‘-고’가 연결어미로 분석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의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연결어미 ‘-(으)나’가 존재한다.

4 절에서 우리는 ‘-디/-나’ 형과 ‘-고’ 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고’는 이미 다른 통사적 환경에서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것이 밝혀진 것들이며, 형용사 반복구문에 사용되는 ‘-고’ 역시 같은 연결어미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디’는 형용사 반복구문 이외에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통사적 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구문의 ‘-나’를 연결어미 ‘-(으)나’와 상이한 것으로 본다면 ‘-나’ 역시 반복구문에서만 관찰되는 형태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디/-나’가 연결어미가 아니라고 본다. 일부 특수한 복합형용사 생성에만 사용되는 형태를 연결어미로 보는 것은 연결어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 ‘-디/-나’가 연결어미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우리는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도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과 같은 현상으로 분석한다. 즉 중첩에 의해 형성된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은 형용사의 어간을 복사하여 중첩의 접사로 삼아 이를 어간의 앞에 위치시키는 어두중첩현상이다. 이 때 중첩접사의 뒷부분은 ‘-디/-나’ 등으로 선명시된다. 즉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선명시된 어두중첩(prespecified prefix reduplication)’이다. 선명시되는 음소선율은 어휘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디/-나’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몽골어의 형용사 중첩접사에 선명시되는 음소선율 /v/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임의의 음소선율로 본다.

중첩은 어간 전부를 있는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 그 일부만을 복사할 수도 있다. 또 몽골어 형용사 어두중첩에서처럼 어간에서 복사된 부분에 선명시된 음소선율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중첩에 있어서도 예 (50)에서처럼 어간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완전중첩과 (51)에서처럼 어간을 복사하되 여기에 선명시된 음소선율이 연결된 경우들도 있다.

(50) 마디마디, 조각조각, 쫄알쫄알, 팔랑팔랑, 하늘하늘

(51) 동네방네, 생글방글, 알뜰살뜰, 허둥지둥, 흥청망청,

예 (51)의 ‘동네방네’는 ‘동네’를 어간으로 해서 이를 복사한 접사의 첫 번째 자음과 모음 골격점(skeletal point)이 각각 /ㅂ/, /ㅏ/로 선명시된 접사 ‘방네’를 첨가해서 형성된 것이다. 중첩접사에 임의로 선명시되는 음소선율은 그 스스로 별도의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즉 /ㅂ/ 자체에는 어휘적/문법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나’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동네방네’에서의 /ㅂ/와 마찬가지로 중첩접사에 선명시된 음소선율로 보는 것이다. 물론 ‘동네방네’의 경우에는 어말중첩으로 ‘방네’의 /ㅂ/는 어말중첩접사의 일부이지만, 형용사 반복구문은 어두중첩의 경우로 ‘-디’는 어두중첩접사의 일부분이다. 또한 /ㅂ/는 어말중첩에서 중첩접사의 첫 음절의 자음과 모음 골격점에 선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두중첩에서 중첩접사의 마지막 음절에 선명시되는 ‘-디/-나’와 다르다.

몽골어의 형용사 어두중첩은 형태/의미론적으로 한국어의 형용사 어두중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첫째, 적용의 대상이 유사하다. 공통적으로 색상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성상형용사들에 주로 적용된다. 둘째, 중첩의 의미기능이 유사하다. 중첩에 의해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셋째 중첩의 방식이 같다. 어간 또는 어간의 일부를 복사한 접사를 형용사 앞에 두는 어두중첩이며 어두접사의 뒷부분이 임의의 음소선율에 의해 선명시된 중첩이다. 즉 두 구문 모두 선명시된 어두중첩이다.

한국어의 형용사 어두중첩과 몽골어의 형용사 어두중첩 사이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몽골어의 형용사 어두중첩은 한국어보다 광범위한 형용사들에 적용된다. 한국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심리형용사들이나 비교형용사에 대응하는 형용사들이 다수

몽골어에서는 어두중첩의 대상으로 허용된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어두중첩은 항상 형용사에만 적용되는데 반해, 몽골어에서는 일부 부사들도 같은 방식의 어두중첩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몽골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의 일부분(첫번째 음절의 자음과 모음)이 중첩접사에 복사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어간 전체가 복사된다.

6.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을 살펴보고 이들을 모두 선명시된 어두중첩으로 분석하였다. 두 언어에서 형용사 반복구문은 주로 색상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성상형용사에 적용되어 대상이 된 형용사의 의미의 정도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어보다 몽골어의 반복구문이 좀더 광범위하고 생산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심리형용사나 비교형용사는 반복구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에 대응하는 다수의 형용사들이 몽골어에서 반복구문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몽골어에서는 또한 일부 부사도 반복구문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한국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에 사용되는 ‘-디/-나/-고’ 중에서 ‘-디’ 형을 가장 전형적인 형용사 반복구문으로 보았다. ‘-나’ 는 어휘적으로 극도로 제한되어 사용된다. ‘-고’ 형은 형용사 뿐만 아니라 동사의 반복구문에도 사용되며 또한 ‘-디/-나’ 와 달리 통사론적 구성을 하고 있다. 한국어 ‘-디/-나’ 형과 몽골어의 형용사 반복구문은 통사론적 구성이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을 보인다. 반복구문이 일부 형용사에만 적용된다는 어휘적 제약성, 선행부분과 후행부분 사이에 다른 어휘적/문법적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비분리성, 선행어와 후행어가 개별적으로 수식어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국어 형용사 반복구문의 ‘-디/-나’ 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몽골어 중첩접사의 /v/와 마찬가지로 어두중첩에서 접사에 선명시된 임의적인 음소선율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 어휘적/문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407.

김승곤(1996) [현대 나라 말본: 형태론], 도서출판 박이정.

김영석&이상억(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157-186.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서정수(1996) [(수정증보판)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태룡(1988)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총서 13, 탑출판사.

송재목(1998) (1999) 할하 몽골어의 중첩현상에 대하여, [언어의 역사: 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태학사, 343-380.

시정곤(1998) [수정판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437-500.

유목상(1985) [연결서술어 어미연구- 활용체계를 중심으로], 집문당.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영석(1995) *A Non-linear Phonological Analysis of the Ideophone system in Korean*,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허웅(1984) [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____(1995) [20 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한글학회(1997)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小?重男 (1983) [現代モンゴル語?典], 東京: 大學書林.

D. Altangerel (1998) *A Modern Mongolian-English Dictionary*, Ulanbator: Interpress.

Hugjiltu (1998) One Shared Method to Express Reinforced Meaning of Adjectives in the Altaic languages, [알타이학보] 8, 한국알타이학회, 211-225.

Jun, Jongho (1994), Metrical weight consistency in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Phonology* 11, No.1, Cambridge University Press, 69-88.

Marantz Alec (1982), Reduplication? *Linguistic Inquiry* 13-3, 435-82.

Marantz Alec (1994), Reduplication, In R. E. Asher & J. M. Y. Simpson (ed.),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3486-7.

Moravcsik, Edith A. (1978), Reduplicative constructions, In Joseph Greenberg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3: Word structur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97-334.

Moravcsik, Edith A. (1992), Reduplication, In William Bright(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Place: Publication, 323-324.

Steriade, Donca (1988), Reduplication and syllable transfer in Sanskrit and elsewhere, *Phonology* 5, 73-155.

Kubo, Tomoyuki (1997), Reduplication and meduplication in Khalkha Mongolian, [言語研究](Gengo Kenkyu) 112, 66-97.

Ya. Ceval (1966) *Mongol xelni? tob? ta?lbar to?*, UlaanBaatar.